

열매 믿음

성경말씀: 마21:12-20

지난 일 년 동안 성경 교정, 출간 등으로 심히 바쁜 날들을 보냈다.

요즘은 책들을 쌓아놓고 읽고 있다. 내적 성숙을 위해

우리 교회의 실상을 점검해 보고 있다. 무엇이 바른 교회일까? 과연 우리는 바른 교회일까? ★★★

바른 교회는 바른 성도들의 모임이다. 과연 나는 바른 성도일까? ★★★

본문 배경(마21; 막11)

33년 반의 지상 생활, 후반부 3년 반의 공생애,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입증했으나 이스라엘은 완강히 그분을 거부함.

공생애 맨 마지막 일 주일: 예루살렘 입성, 성전을 깨끗하게 함(마21:16)

성전: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세웠다.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 둘째 성전이 세워짐. 열등함.

예수님 직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출중한 건축가가 예수님 오시기 16년 전부터 다시 짓기 시작함.

원래 성전은 18,000명이 8-9년 정도 지었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짓느라 총 46년이 걸림(요2:20).

그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건물 중에서 영화와 예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이었다.

보기에는 대단한데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겉으로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은 완전히 썩어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이 일 뒤에 베다니에 나가셨다가 다시 도시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나무 사건이 발생한다.

시장하셨다. 멀리서 보니 잎사귀가 풍성하게 자란 아름다운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

이것은 표적이요 동시에 비유이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만에 차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드러난 그대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셨다. ★★★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다. 열매, 열매, 열매 ★★★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등골이 서늘한 주제: 나는 열매가 있는가? '열매 믿음' ★★★

무화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 잎이 나타나거나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무화과 그러므로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유월절이 있는 4월경에는 그렇다.

열매 없는 무화과: 비정상적인 성장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처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열성이 대단하다. 시간이 지나면 우수수 잎이 떨어지고 만다. 그게 끝이다.

일차적으로 여기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유일한 하나님, 율법, 대언자들, 제사장들, 성전 예배, 회당, 삶 자체가 종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조사해 보니 열매가 없다. ★★★

우리 주변에 엄청난 교회들이 있다: 세계 10대 교회 등이 여기에 있다.

최대 성도, 최대 예배당, 최대 헌금, 최고 예배 시설, 최대 신학교 수 등을 자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까?

빌리 그레함, 로버트 슐러,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가? 1997년 5월 31일 대담

슐러 :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엄 : 잘 알다시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 그룹뿐만이 아니고 크리스천 그룹에서 나오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모슬렘 세계에서나, 불교도 세계에서나, 기독교 세계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백성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으므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빛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러 : 뭐라고요?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그레이엄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야생 상태로 거하고 있는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술러 : 놀랍군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효는 엄청나게 크군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복음인가? 빌리 그레함, 로버트 술러, 마더 테레사, 교황, 조용기 목사 등이 다 같은 통속이다. WCC 총회를 연다고 난리이다. 종교통합을 하는 운동이다. 앞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

앞사귀가 많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보면 열매가 없다. ★★★

엡5:1-12

우리는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침례교회, 바른 말씀, 바른 구원, 바른 교회를 주장하는 데 과연 열매가 있는가? 사람이 보는 열매 말고 예수님이 보시는 열매 말이다.

2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다. 추종자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 이단 교주처럼 되고 만다. 방종한 삶이 나온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예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다.

첫째 아담은 죄를 짓고 무화과에서 앞사귀를 가져다가 가렸다(창3:7): 자기 노력.

그러나 둘째 아담은 열매를 원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온다. 안 나오면 이상하다. ★★★

열매

1. 회개의 열매
2. 기도의 열매
3. 인격의 열매
4. 구령의 열매
5. 모임의 열매
6. 돌봄의 열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내 주변 친척, 내 나라
7. 성장의 열매

결론

우리는 가지이다. 가지는 일단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는 예수님이다. 구원 받았는가? ★★★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

열매가 없으면 가짜이다. 영원히 지옥 불속에 간다. ★★★

회개하라!